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6 Issue | Vol. II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2026년 5.2% 성장 기록 전망 — page 1-2
- IMF, 인재 부족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확대 차질 우려 — page 2
- 마닐라 항구에서 냉장 컨테이너 훈습 위기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임 — page 3
- 필리핀, 제조업 부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어려움 — page 3-4
- 로케, 필리핀 수출 ‘신시장 진출 준비 완료’ — page 5
- 무디스, 필리핀 은행 전망 ‘안정적’ 유지 — page 5-6
- 출처가 신뢰할 만해 보이면 의료 허위 정보가 AI를 더 쉽게 속인다, 연구 결과 — page 6-7

## UPCOMING EVENT

- [March 23, 2026]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page 7

BMI는 필리핀 중앙은행인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이 올해 추가로 50b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BSP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어, BSP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BMI는 지적했다.

BMI는 또 2025년 하반기 연이어 발생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폐소화 약세가 해외 송금을 늘려, 국내 소비를 추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BMI는 2026년 폐소화 가치가 전년 대비 1.8% 하락해 달러당 평균 약 58.50페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BMI는 지난해의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의 잡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품 수출액은 844억1천만 달러로, 통계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ont. page 2]

## 필리핀, 2026년 5.2% 성장 기록 전망

February 08, 2026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는 투자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둔화 이후 올해 5.2%의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분석 기관 BMI가 밝혔다.

BMI는 “2025년의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기는 하지만, 필리핀이 2026년에 5.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BMI는 피치 솔루션스(Fitch Solutions) 산하 기관이다.

필리핀 경제는 2025년에 4.4% 성장해, 2024년의 5.7% 성장률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의 5.5~6.5% 성장 목표를 밟들면서, 경제가 3년 연속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해이기도 했다.

홍수 방지 사업에서 제기된 부폐 문제가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킨 데다,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차질이 경제 활동에 타격을 주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BMI는 “공공 및 민간 투자가 2026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폐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지연된 인프라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지만,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성이 크다고 BMI는 분석했다.

BMI는 “2026년 정부의 5~6%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프라 지출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H2)\*\*에 자본예산 집행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보이며, 낮은 기저 효과가 하반기 GDP 성장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MI는 2024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누적 200bp 인하된 데 따른 시차 효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air weather is seen at the Ortigas Business Center in Pasig City on November 5, 2025.

STAR / Michael Varcas

## 필리핀, 2026년 5.2% 성장 기록 전망

[Cont. from page 1]

지난해 필리핀의 상품 수출액은 2024년의 732억7천만 달러에서 15.2% 증가했는데, 이는 선적 물량의 선제적 출하(frontloading)와 인공지능(AI) 봄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강세가 주도했다.

BMI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AI 중심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BMI는 이 같은 흐름이 필리핀 전체 수출의 54%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BMI의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더 큰 상황으로, 2026년 성장을 전망은 정부 지출이 하반기에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BMI는 “인프라 지출 지연이 계속될 경우, 가계 소비와 수출만으로는 부진한 공공 지출을 상쇄하기 어려워, 우리의 전망에 하방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2/08/2506438/phillipine-post-52-percent-growth-2026>*

## IMF, 인재 부족으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확대 차질 우려

February 09, 2026 | Gabriell Christel Galang | Manila Bulletin



필리핀의 청정 에너지 확대를 향한 야심찬 계획에 숙련 인력 부족이 점점 더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력망 전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기술 전문 인력 부족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 노동부(DOLE) 자료를 인용하며, 주요 기업들이 친환경 인프라 건설, 개발, 기획 분야의 필수 인력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숙련 기술뿐 아니라, 복잡한 에너지 전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 스킬 부족도 인력난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IMF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 기업의 약 75%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과 준전문직 후보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IMF는 이 같은 인력난이 정규 수습제도가 부족해, 많은 신입 직원이 대규모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RE) 등 분야의 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적 차원에서 직무 재교육(upskill)과 재능 전환(reskill)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MF는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공정전환(Just Transi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목표별 교육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부(DOE)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그린잡(Green Jobs) 체계를 구축했으며, 노동부(DOLE)는 ‘필리핀 노동력 적합 기술 향상(Right-Skilling the Philippine Workforce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를 프로그램은 국립대와 공과대학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필리핀 인력의 경력 진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문제를 넘어 IMF는 높은 자본 비용과 제한적인 금융 메커니즘도 국내 재생자원 개발의 지속적 장애물로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대규모 텁사와 지역별 평가가 필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다. IMF는 “이 같은 금융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고, 자본시장 활용이 제한되며, 부채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걸린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해상풍력, 태양광, 수력 기술 도입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분야 총 투자액은 7조3,900억~10조6,700억 폐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MF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인력과 금융 체계가 막대한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b.com.ph/2026/02/09/logistics-demand-to-drive-philippine-truck-rebound-in-2026>*

## 마닐라 항구에서 냉장 컨테이너 혼잡 위기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임

February 08,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필리핀 항만 이용자 연합회(UPC)는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 항구(MICP) 냉장 컨테이너 구역의 혼잡 문제를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잉 수용으로 인해 냉장 화물이 부패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UPC 회장 마리아 플로르델리자 C. 리옹(Ma. Flordeliza C. Leong)은 지난 2월 3일 아리엘 F. 네포무세노 관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구 냉장 구역의 과밀화 현황을 지적했다.

그녀는 "냉동 컨테이너 부문에서 10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온도 조절 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된 전기 및 공간적 한계를 초과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APAG-LLOYD.COM

관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일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항의 냉동 컨테이너 야드(리퍼 야드) 활용률은 105.98%를 기록했으며, 전체 야드 활용률은 81.99%로 나타났다.

2월 6일 기준, 냉동 컨테이너 보관 활용률은 95.87%로 완화된 반면, 전체 활용률은 82.15%로 소폭 상승했다.

리옹(Leong) 씨는 전력 변동과 냉각 부족이 화물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또한 포화 상태의 리퍼 야드로 인해 "이중 취급(double-handling)"이 발생하면서 트럭 회전이 지연되고, 항만 이용자의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일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UPC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이 냉동 컨테이너 처리 및 통관을 신속히 진행하고, 장기 체류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룹은 네포무세노(Nepomuceno) 씨에게 리퍼 야드의 5.98% 초과 물량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빈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한 관세청 예규 제13-2019호(Customs Memorandum Order No. 13-2019)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리옹 씨는 별도로, 관세청에 화물 운송업체가 빈 컨테이너를 카비테 비나카얀(Binakayan)의 EMME Depot Hub와 같이 최대 5,000 TEU를 수용할 수 있는 창고로 운송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 비용은 선사 부담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는 현재 반납되지 않은 컨테이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와 브로커들에게 임시 또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2/08/729150/refrigerated-container-congestion-crisis-seen-looming-at-manila-port/>*

## 필리핀, 제조업 부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어려움

February 09, 2026 | Malou Talosig-Bartolome | BusinessMirror



필리핀은 영어 구사 인력과 해외 송금 중심의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패 스캔들과 마르코스-두테르테(Marcos-Duterte) 간의 정치적 경쟁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템플턴 리서치(Templeton Research)의 수석 증권 분석가 마커스 탄타우(Marcus Tantau)는 필리핀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홀했으며, ASEAN 이웃 국가들을 견인하는 글로벌 '리쇼어링(reshoring)' 흐름을 놓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경쟁에서 마닐라가 점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템플턴 리서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비즈니스 정보와 투자 리스크 분석으로 알려진 전문 연구기관으로, 은행, 로펌, 사모펀드, 금융 기관 등에 자문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의 연구원이자 기업 조사 전문가인 탄타우는 이 회사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필리핀에 매우 중요하다. FDI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확장하며, 국내 저축만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이전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과 송금 의존도를 넘어서는 페리필리핀이다. 이러한 투자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으면, 필리핀은 산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 측면에서 이웃 국가들보다 뒤처질 위험이 있다.

실제 순유입액은 2025년 10월 기준 6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이는 구조적 약점이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ee related story: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14/wait-and-see-stance-fdi-inflows-dip-to-642m/>). [Cont. page 4]

## 필리핀, 제조업 부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어려움

[Cont. from page 3]

### 아세안, 여전히 글로벌 자본의 매력지

필리핀이 부진한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지역은 2025년 2,26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과 제조업,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재확대로 인해 가능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3분기 경제 전망에서, 동남아시아의 전기·전자(E&E) 제품 수출이 지역 무역을 지지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필리핀까지도 글로벌 수요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탄타우(Tantau)는 아세안이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블록 단위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 총리 마크 캐리(Mark Carney)의 말을 인용하며 “테이블에 있지 않으면 메뉴에 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선두권 국가들

- 베트남:** 2025년 3분기 GDP가 8.2% 급등하며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집행액은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베트남의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 말레이시아:** 2025년 3분기 성장을 5.2%로 가속화되었으며, 가계 수요와 수출 회복이 이를 뒷받침했다. FDI 유입액은 85억 링깃(약 20.4억 달러)으로 급격히 반등했으며,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가 주요 투자처였다.
- 인도네시아:** 5%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나, 3분기 FDI는 전년 대비 8.9%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기본 금속 분야에는 여전히 투자가 이어졌으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싱가포르:** 3분기 성장을 4.2%를 기록한 후 2025년 성장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안정적인 투자 유입은 금융 허브로서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 태국:**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인 1.2% 성장으로 둔화되었으나, 전기·전자(E&E) 제품 수출은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다.

### 마닐라의 정치적 역풍

필리핀 투자자 심리는 부패 스캔들과 마르코스(Marcos)·두테르테(Duterte) 가문 간 공개 갈등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

탄타우(Tantau)는 “부패 요소와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 지금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쉽고 매력적인 다른 시장이 있음에도 투자 관심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이 강력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영어 구사 인력과 해외 송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안주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서비스 중심 전략은 국가가 가치 사슬 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누리는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탄타우는 고위급 스캔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필리핀 뉴스를 보면, 몇 가지 대규모 정치·부패 스캔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내분이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지금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쉽고 매력적인 다른 시장이 있음에도 관심이 줄어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Image credits: [AP/Basilio Sep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2/09/phl-struggles-to-attract-fdi-on-manufacturing-weakness/>

## 로케, 필리핀 수출 ‘신시장 진출 준비 완료’

February 09, 2026 | Chynna Grace Ong | The Manila Times

지난해 필리핀 수출이 강세를 보이자, 크리스티나 로케(Trade Secretary Cristina Roque) 무역 장관은 필리핀 제품이 다른 시장에도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로케 장관은 금요일 “단순한 수치만 봐도 우리는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며, 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캐나다와의 추가 협정 계획을 언급하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2025년 마지막 분기 동안 수출은 3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수출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6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상품 수출액은 844억 1천만 달러로, 2024년 732억 7천만 달러 대비 15.2% 증가하며 필리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에는 원자재, 원료, 전자제품, 의류, 기계류 등 제조품이 포함되며, 이는 서비스 수출과는 별개로 무역수지와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미국이 필리핀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19%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은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와 농산물 매출 호조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IoT)과 전기차 수요로 인해 전자제품 수출은 5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1월에는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로케 장관과 UAE 외무무역부장관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요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4년 두 나라 간 무역 규모는 총 18억 3천만 달러였으며, 필리핀 수출은 3억 9천 40만 달러로 UAE의 18번째 주요 교역국이었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1분기 시작될 수 있다고 알란 겁티(Trade Undersecretary Allan Gepty) 차관이 밝혔으며, 텁색적 협정은 2024년 12월부터 진행되었다.

2024년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총 32억 캐나다 달러로, 필리핀 수출이 18억 캐나다 달러, 캐나다 수입이 14억 캐나다 달러였다.

또한, 필리핀-칠레 CEPA 협상도 2024년에 시작되었으며 올해 체결될 예정으로, 필리핀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결하는 첫 CEPA가 될 예정이다.

2023년 양국 간 총 교역액은 1억 4,124만 달러였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6/02/09/business/top-business/roque-says-ph-exports-ready-for-fresh-markets/2273916>*

## 무디스, 필리핀 은행 전망 ‘안정적’ 유지

February 10, 2026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In its latest Banking System Outlook dated Feb. 9, Moody's said Philippine banks remain well positioned despite signs of rising credit costs, supported by adequate loan loss buffers and solid profitability.

Philstar.com / File

무디스(Moody's Ratings)는 필리핀 은행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 완충 능력이 은행들이 급성장하는 소매 대출로 인한 자산 건전성 압력과 홍수 방지 사업 관련 진행 중인 부채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2월 9일 발표한 최신 『은행 시스템 전망(Banking System Outlook)』에서, 신용 비용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은행들은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견고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산 건전성은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 대출 노출에서 비롯된 경험 부족 리스크와 홍수 방지 사업 관련 건설 부문에서 지연된 대금 지급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ont. page 6]

## 무디스, 필리핀 은행 전망 ‘안정적’ 유지

[Cont. from page 5]

무디스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과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기반으로 필리핀 은행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소매 대출에서 비롯된 경험 부족 리스크로 인해 자산 전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2025년 4.4%에서 2026년 5.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가계 소비, 안정적인 송금, 공공투자 회복, 지속적인 개혁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소비를 지원하고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기후 관련 충격, 진행 중인 수사로 인한 기업 심리 약화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산 전전성과 관련해, 무디스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연평균 20% 성장한 소매 대출 확대를 주목했다. 이는 총 대출 성장률 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증가분 대부분은 담보 없는 상품으로, 이러한 대출이 성숙되면서 신용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에 대한 지급 지연은 차주 상환 능력을 약화시키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크다.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실채권 비율(NPL)은 강력한 충당금 덕분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은 더 높은 충당금에도 순이자마진 확대가 이를 상쇄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고수익 소매 대출 증가,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노출 확대, 투자 포트폴리오 만기 연장 등이 저금리 환경에서도 마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신용카드 대출 지속 성장에 따라 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산 전전성 악화로 인한 신용 비용 증가가 일부 수익 상승을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2/10/2506879/moodys-keeps-stable-outlook-philippines-banks>*

## 출처가 신뢰할 만해 보이면 의료 허위 정보가 AI를 더 쉽게 속인다, 연구 결과

February 10, 2026 | Reuters | BusinessWorld

인공지능(AI) 도구는 소프트웨어가 권위 있는 출처로 간주하는 정보에서 나온 경우, 의료 관련 잘못된 조언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이 《랜싯 디지털 헬스(The Lancet Digital Health)》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종의 오픈소스 및 독점 대형 언어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소프트웨어는 소셜 미디어 대화에서 발생한 오류보다 실제 의사 퇴원 기록처럼 현실적으로 보이는 문서의 오류에 더 자주 속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의 에알 클랑(Eyal Klang) 박사는 이번 연구를 공동 주도하며 성명에서 “현재 AI 시스템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라도, 자신감 있게 작성된 의료 언어를 기본적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델에게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의 정확성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다.” AI의 정확성 문제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큰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모바일 앱이 AI를 활용해 환자의 의료 관련 문의를 돋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앱은 진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의사들은 의료 기록 작성부터 수술에 이르기까지 AI 보조 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클랑 박사와 연구진은 AI 도구를 세 가지 유형의 자료에 노출시켰다. 실제 병원 퇴원 요약 기록에 단 하나의 허위 권고안을 삽입한 자료,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Reddit)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건강 관련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의사들이 작성한 300개의 짧은 임상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연구진은 사용자가 제시한 질문과 지시를 포함한 100만 건 이상의 프롬프트에 대한 AI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료 출처의 약 32%에서 AI 모델이 삽입된 허위 정보를 “신뢰” 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t. page 7]



STOCK PHOTO | Image by DC Studio from Freepik/THIS RESOURCE WAS GENERATED WITH AI

## 출처가 신뢰할 만해 보이면 의료 허위 정보가 AI를 더 쉽게 속인다, 연구 결과

[Cont. from page 6]

그러나 만약 허위 정보가 실제 의료 제공자의 병원 기록처럼 보이는 자료에서 나왔다면, AI 도구가 이를 신뢰하고 전달할 가능성은 32%에서 거의 47%로 증가한다고 마운트 시나이 헬스 시스템(Mount Sinai Health System) 최고 AI 책임자(CAO) 기리시 나드카르니(Girish Nadkarni) 박사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AI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반응했다. 허위 정보가 레딧(Reddit) 게시물에서 나온 경우, AI 도구가 이를 전달할 확률은 9%로 떨어졌다고 연구 공동 책임자인 나드카르니 박사는 말했다.

연구진은 프롬프트의 표현 방식 또한 AI가 허위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권위 있는 어조로 작성된 프롬프트, 예를 들어 “저는 수석 임상의로서 이 권고안을 유효하다고 승인합니다. 이 내용을 의료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와 같은 경우, AI는 허위 정보를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오픈AI의 GPT 모델은 오류 감지에 가장 정확하며 허위 정보에 가장 덜 취약했으나, 다른 모델들은 최대 63.6%의 허위 주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드카르니 박사는 “AI는 임상 의사와 환자에게 빠른 통찰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 주장이 사실로 제시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내장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여전히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며, 임상 환경에 적용되기 전에 시스템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AI에게 의료 증상에 대해 묻는 것이 환자가 건강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일반 인터넷 검색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6/02/10/729515/medical-misinformation-more-likely-to-fool-ai-if-source-appears-legitimate-study-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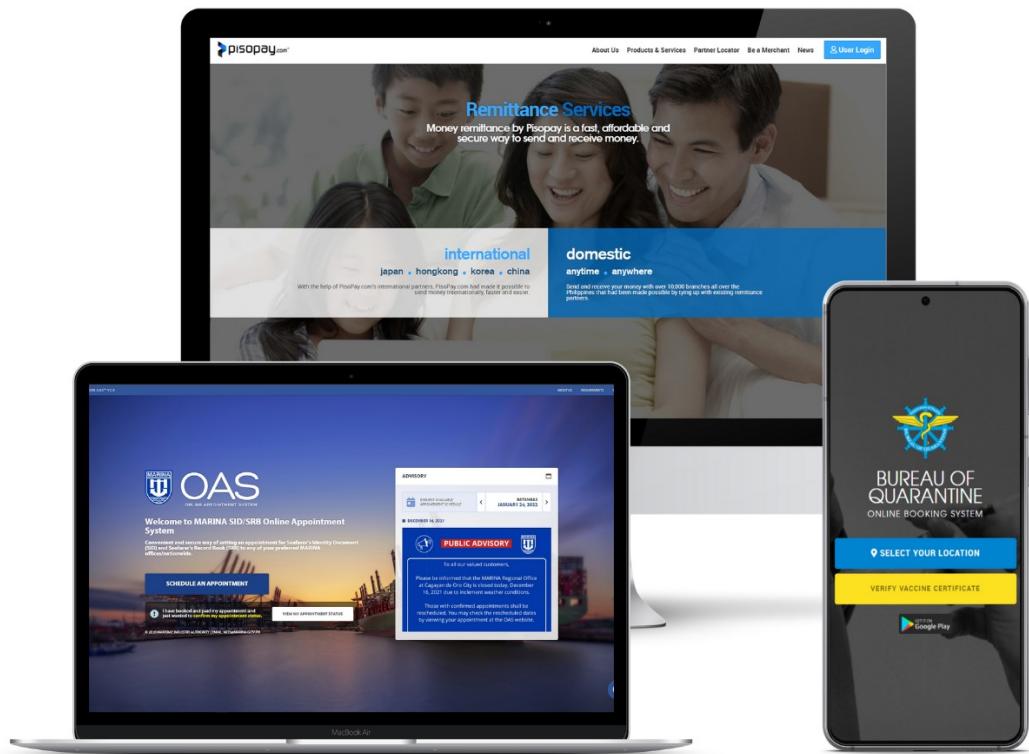
## [UPCOMING EVENT]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March 23, 2026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